

국산 풀사료 알팔파·사료피 품질 신뢰도 높인다.

- 알팔파·사료피 근적외선 분광법(NIRS) 기반 검량식 개발 및 보급 예정
- 국산 풀사료 유통량 증가, 품질 개선 신뢰도 높아야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확대를 위해 알팔파와 사료피에 대한 근적외선 분광법(NIRS*)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품질검사 대상 작물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IRS(Near-Infra Red Spectroscopy): 근적외선(약 700~2,500nm) 영역의 빛을 이용해 시료 내 수분, 단백질, 섬유소 등의 함량을 분석하는 비파괴 분석기

풀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는 국내에 유통되는 국산 풀사료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고품질 풀사료 생산에 대한 농가 관심이 높아지면서 알팔파 재배 희망 농가가 늘어나고, 사료피 재배 면적이 확대*되면서 국내 유통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원활한 품질검사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

*논 전락작물직불제 시행에 따라 2023년 777ha에서 지난해 2,206ha로 확대

연구진은 2024년 국산 시료를 수집·분석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알팔파 검량식을 개발했다. 사료피 검량식은 올해 신규 생산한 시료를 추가 수집해 개발할 예정이고, 이후 품질분석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급·확대할 방침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앞서 국내 생산 풀사료 시료 1만 3,000여 개를 수집해 동계작물 4종(이탈리안라이그라스, 청보리, 호밀, 혼파)과 하계작물 3종(옥

수수, 수수류, 사료용 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량식을 개발해 기술이전 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시도, 농업기술센터 등 54개 품질 검사기관에서는 품질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 수확 제조비 차등 지급 등 풀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이상훈 과장은 “품질검사 가능 품종을 확대해 ‘국산 풀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정책사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목초 사료작물 재배 확대 및 유통 풀사료 품질향상에 힘쓸 예정이다.”라며 “국산 풀사료 품질이 향상되면, 풀사료 생산 농가 소득향상 및 축산 농가 사료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붙임. 풀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연구사	이상훈 (041-580-6740) 김지혜 (041-580-6762)

붙임**풀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목적**

- 국산 풀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 국산 풀사료 생산 유도 및 양질의 풀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 주요 추진 내용

- 풀사료 품질검사 등을 통해 등급을 구분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차등 지원
 - * 풀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보온덮개, 사일리지 및 건조 사후관리 비용 등

□ 품질 등급 기준 *2024

- 동계 사료작물
 - 수분·조단백질 기준 유통 규격 준수 유도

구 분 (%, 원/kg)	품질 등급			
	건초 등급	A 등급	B 등급	등외 등급
수 분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또는 9% 미만
조단백	9% 이상			
지원액	200	180	160	120

※ 조단백질은 허용오차 적용(사료관리법 준용 상대오차 10%)

- 하계 사료작물
 - 초종별 차등지원으로 양질의 풀사료 재배 유도

구 분 (원/kg)	초종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기타
초 종	알팔파	옥수수	사료용 벼 등 풋베기 작물	수단수수, 사료용 피	그외 초종 또는 등외
수 분	50% 이하	68% 이하	58% 이하	50% 이하	
지원액	230		200	170	140

※ 곤포(압력) 130bar 이상 작업 조치 / 수분은 허용오차 적용(사료관리법 준용 상대오차 5%)